

협회소식/업계동정

乳加工協會 93정기총회개최 올 사업계획 수지에산 확정

韓國乳加工協會(회장 全應璫)는 지난 2월 23일 협회회의실에서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13개회원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9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92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서를 승인하고 93년도 사업계획 및 4억6천9백만원 규모의 수지에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매일유업 사장 朴熾柱씨



매일유업(주)는 지난 3월 15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장에 朴熾柱씨를 선임했다.

32년 경남남해 출신으로 경남상고와 국민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한 朴사장은 서울신문 기획통제실을 거쳐 78년 매일 유업부사장, 88년부터 한국테트라팩 부사장을 역임했다.

한국야쿠르트 신축사옥 기공 연건평 7천 6백평 95년 완공

韓國야쿠르트유업·주(대표 李銀鮮)는 지난 2월 27일 서울서초구

잠원동 신사옥부지에서 자체사옥 신축기공식을 가졌다.

오는 95년 6월 완공예정인 신축사옥은 대지 1천여평에 연건평 7천6백평의 지상11층, 지하6층 규모로 건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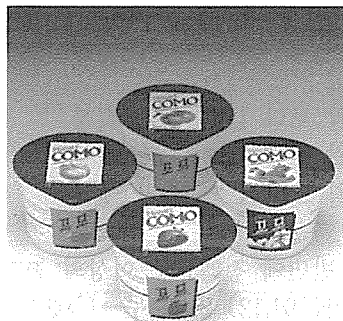
해태, 서울사옥 신축 이전

해태유업·주(대표: 閔丙憲)은 지난 3월5일 서울송파구 가락동 77-1에 서울 사옥을 신축 완공, 서울사무소를 이전했다. 전화 408-9600, FAX 408-3900.

남양유업, 糊狀발효유 신제품 '모짜르트 꼬모' 4종개발 시판

남양유업·주(대표: 洪源植)은 최근 호상발효유제품 '모짜르트 꼬모'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모짜르트 꼬모'는 牛骨과 생선뼈에서 추출한



천연칼슘 1백 65mg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유산균보다 장내 생존율이

높은 비피더스균을 1억마리 이상 첨가한 고급제품으로 포장형태도 다른 호상발효유제품에 비해 용기의 지름을 크게 하고 높이를 줄여 안정감을 주도록했다.

남양유업은 딸기와 복숭아, 살구, 열대과일 4종류로 돼 있는 '모짜르트 꼬모'의 1일 시판목표를 30만개로 잡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과일을 이용한 시리즈제품을 계속 내놓을 계획이다.

'모짜르트 꼬모'의 소비자 가격은 1백10ml 한병에 4백원.

서울우유, 原乳수송사 설립 集配送 위생관리 직접 통제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權五杰)은 原乳 수급체계의 개선을 위해 원유수송만을 전담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했다.

자본금 2억원으로 설립된 서울우유유통주식회사(대표 姜升基)는 앞으로 1백50여대에 이르는 조합의 집유차량 관리 및 운송업무를 맡게 된다.

서울우유측은 지금까지 서울운수와 흥신운수 등 2개 용역업체를 통해 원유의 집배송을 해왔으나 위생관리면에서 직접적인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용역비용의 인상 등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돼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우유는 이에앞서 빙과류 판매를 전담하는 자회사를 설립한 바 있어 앞으로 이들 2개 자회사의 사업성과를 검토, 유통부문 전반에 걸쳐 별도법인체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야쿠르트, 드링크 요구르트
무설탕 ‘마쭈니 사과’ 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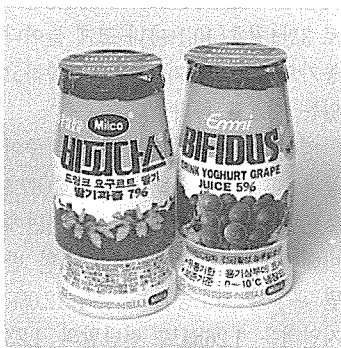
韓國야쿠르트유업·주는 최근 드링크타입의 유산균 발효유인 ‘마쭈니 사과’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마쭈니 사과’는 사과과즙 20%에 올리고당, 식이섬유를 첨가한 무설탕 발효음료로 비피더스균과 복합 강화균을 사용해 뛰어난 정장효과를 발휘한다.

소비자 가격은 1백10g당 1개에 350원.

**해태유업, 드링크 요구르트
‘비피다스 딸기·포도’ 시판**

해태유업·주(대표: 閔丙憲)는 최근 비피다스 드링크요구르트 딸기와 포도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이 제품은 상큼한 과즙과 우리몸에 유익한 복합 유산균(비피도 박테리움, 에피도필러스, 서머필러스), 식이섬유, 올리고당을 함유한 건강 활성 농후발효료로서 먹기편한 드링크타입의 요구르트.



1백ml 1병에 1천억균의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으며 인공감미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과즙으로 맛을 낸것

이 특징.

딸기 제품은 천연딸기과즙이 7%, 포도 제품은 포도과즙이 5% 함유돼있다.

소비자가격은 1백ml 1병에 3백원.

서울우유, ‘비어세대’ 개발시판

서울우유조합은 최근 치즈와 어육을 이용한 ‘비어(Beer)세대’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서울우유에 따르면 ‘비어세대’는 치즈에 북태평양産 명태의 흰살을 입힌 슬라이스 형태의 신제품으로 술안주와 어린이 간식용에 수요를 맞췄으며 가격은 45g 1개에 1천2백원.

지난해만 어린이용 치즈 ‘앙팡’을 출시한 서울우유는 ‘비어세대’에 이어 올해안에 피자토스트치즈와 조미치즈등 다양한 치즈가공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롯데우유, 사과즙·칼슘첨가한
무설탕요구르트 ‘요둘리’ 시판**

롯데햄우유(대표 趙東來)는 최근 설탕을 넣지 않고 사과즙과 칼슘 등을 첨가한 요구르트 신제품 ‘요둘리’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롯데햄우유에 따르면 이 제품은 충치와 비만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설탕이 들어있지 않고 그 대신 액상과당과 5%의 사과과즙이 들어있다.

이 제품은 또 장내 소화흡수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피더스균과 성장기 아동들에게 필수적인 칼슘이 하루 권장량의 10%인 60

mg가량 들어있다.

소비자가격은 1병(65ml)에 1백50원.

**斗山종합식품, 고온우유개발
‘그린빌프리미엄 우유, 시판**

두산종합식품(사장 安基瑩)은 최근 고급유제품인 「그린빌 프리미엄



우유’를 개발, 시판에 나섬으로써 고급우유시장에 뛰어 들었다. 「그린빌 프리미엄우유」는 서해안 청정지역의 목장에서 원유를 집유, 섭씨 75도에서 15초간 살균하는 고온순간살균법(HTST)으로 처리한 제품이다.

소비자가격은 4백80g에 8백20원, 9백90g 1천5백원.

**매일, 곡류 첨가한 요구르트
‘바이오거트 씨리얼믹스’ 시판**

매일유업(주)는 최근 건강에 좋은 곡류와 신선한 과일을 혼합한 새로

운 타입의 떠먹는 요거트 ‘바이오거트 씨리얼믹스’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바이오거트 씨리얼믹스’는 기존 바이오 거트와 같이 장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유해세균 억제, 유익한 세균의 균형유지등 탁월한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화되기 쉽게 특수가공처리한 울무·밀·호밀·보리등의 곡류가 들어있어 신선한 과일 맛과 부드러운 곡류의 맛을 동시에 느낄수 있는게 특징.



특히 곡류 및 과일시럽이 20% 들어있어 영양의 균형을 이루어 식사대용은 물론 청소년 및 성인건강식으로도 알맞다.

바이오거트 씨리얼믹스는 사과·당근과 바나나 두종류가 있으며 소비자가격은 150g이 5백50원, 300g(덕용포장)이 1천원.

매일, 저칼로리 糊狀발효유 ‘바이오거트 라이트’ 시판

매일유업(대표 朴熺柱)은 최근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저칼로리 糊狀발효유 ‘바이오거트 라이트’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매일유업에 따르면 바이오거트

라이트는 脫脂乳를 주성분으로 하고 설탕대신 올리고당을 첨가한 무지방, 무설탕 다이어트 제품으로 1백g당 열량이 일반 발효유제품의 절반수준인 50~60cal에 불과하다.

매일유업은 독일 사노피社로부터 영하 23℃의 초저온냉동상태에서 바이오거트균주를 들여와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딸기, 블랙베리, 블루베리 등 과일시럽이 20% 함유된 베리믹스, 오렌지, 자몽, 레몬의 과일시럽이 20%들어있는 시트러스믹스 등 두종류가 있다.

바이오거트 라이트는 기존 호상 발효유보다 용량이 40g 증가된 1백50g이며 소비자가격은 5백50원.

종합소식

작년 농가인구 36만명 감소 가구수도 전년비 6만 1천호

농가인구 감소추세와 노령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구당 경지면적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림수산부가 전국 4천 1백 1개 표본조사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92농업기본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농가수는 1백64만 1천호로 전년말에 비해 6만 1천호(3.6%)가 줄어들었고 농가인구는 5백70만 7천명으로 36만 1천명(6.0%)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총인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91년말의 14.0%에서 13.1%로 낮아졌다. 또한 호당경

釜山우유 조합장 林文植씨

부산경남우유조합은 지난 2월 24일 조합장선거를 실시, 林文植씨를 새조합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林조합장은 동아대 경영학과와 동대학원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중축개량협회 대의원, 부경낙농연합회장, 경남낙농우유인연합회장을 역임했다.

또 8년간 부산경남우유조합 총대를 역임하고 동조합 감사와 이사를 거쳐 현재 한국중축개량협회 이사와 낙농우유협회이사를 맡고 있다.

총농가중 농사만을 짓는 전업농가는 1백2만 6천호로 전체농가의 62.5%를 차지, 전년말에 비해 9만 3천호(8.3%)가 감소한 반면 겸업농가는 61만 5천호로 3만 2천호(5.5%)가 늘었다.

특히 겸업농가중 농외소득의 수입비중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농가는 91년말의 32만 9천호에서 36만 3천호로 3만 4천호(10.1%)나 크게 늘어나 농가의 소득구조가 점차 선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형태는 전통적으로 비중이 높은 미작농이 1백 10만 6천호(67.4%)로 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전년에 비해 7만 1천호(6.0%)가 감소한 반면 과수와 채소농가는 각각 12.0%, 지면적은 1.26ha로 전년말의 1.23ha에 비해 0.03ha가 늘어났다. 특히 경지규모가 2ha(6천평)이상인 부농은 91년말의 9.5%에서 작년말에는

6.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작년말 현재 어가수는 11만6천2백호로 전년말의 11만9천8백호에 비해 3%가 줄었고 어가인구는 42만4천9백명으로 전년말의 46만9천5백명에 비해 9.5% 감소했다.

이처럼 어가인구는 줄어들었으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91년말의 20만4천6백명에서 20만6천6백명으 10.7%로 늘어난데 비해 1.0~2.0ha의 경지를 갖고 있는 증농은 30.1%에서 29.1%로 줄어들어 中農의 難農현상이 두드러졌다.

로 1%가 증가했다.

또 어가호당인구는 전년말의 3.92명에서 3.66명으로 줄어들었다.

파스퇴르 사과요구르트 광고 大法, 과대광고규정 패소판결

대법원 특별 3부 (주심 金祥源대법관)는 3월 5일 (주)파스퇴르유업(대표 최명재)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식품품목제조정지 및 광고금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파스퇴르유업측의 광고가 과대광고라는 이유로 피고측이 내린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 파스퇴르유업측에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제에서 “식품위생법 11조1항은 식품첨가물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해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못하고 의약품과 혼용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거나 광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파스퇴르유업측의 광고는 이같은 조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법 시행령은 건강보조식품 제조업 및 인삼제품 제조가공업 허가제조식품에 대해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과대광고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광고한 과즙사과요구르트는 유가공품 제조업 허가식품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파스퇴르는 지난 91년 9월과 10월 일간지 등에 외국교과서의 요구르트에 관한 글을 인용, “과즙사과요구르트 등을 마시면 변비 등腸질 환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내

용을 담은 광고를 게재, 강원도측이 과대광고라는 이유로 1개월의 식품제조정지 및 광고금지 처분을 내린 자 소송을 냈었다.

올해 폐우유팩 2천톤 회수 우유팩재활용협, 정기총회

올해부터 폐우유팩 회수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유업계와 소비자단체등으로 구성된 우유팩 재활용협의회(회장 全應璫한국유가공협회장)는 지난 3월 12일 한국유가공협회 회의실에서 9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총2천톤의 폐우유팩을 회수키로 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동협의회는 이를 위해 그동안 서울에서만 운영하던 폐우유팩과 재활화장지 교환코너를 참여단체수도 늘려 지방으로까지 확대운영키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한국테트라팩, 부림제지공업, 대자연환경보전회등 3개단체및 업체를 신규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牛乳”誌는 유가공관련 종사자에게는 情報源으로서, 국민들에게는 식생활 개선을 통한 건강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유가공 종합정보지입니다.

牛乳誌는 열린 잡지이며 독자 여러분의 것입니다.

좋은 글 많이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글의 내용이나 길이에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유 및 유제품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 없이 좋겠지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낼곳 :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31-1 한국유가공협회 牛乳편집실